

심청

남원의 이름난 미녀 춘향이 몸종 향단이와 함께 단오날 그네를 뛰고 있던 차에 마침 구경 나온 양반가의 후계자 몽룡이 그녀를 보게 되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몽룡의 하인 방자의 도움으로 연애 플래그가 성립된 그들은 곧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남원 부사였던 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임명되면서 몽룡도 한양으로 떠나게 된다.

남겨진 춘향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남원 부사로 새로 부임한 변학도에게 억지로 속청 수청을 들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패썹죄로 그녀는 옥에 갇히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몽룡은 거지가 다 되어서 그녀를 다시 찾아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정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생일 잔치 날, 변학도는 운봉, 곡성, 정읍 등의 주변 고을 사또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인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자 이들은 양반답게 한시 놀이를 하게 되는데, 변학도가 '고'를 운으로 띄워서 변 사또의 부하들과 변 사또의 동료 사또들 및 생일 잔치에 초청된 양반들이 한시를 짓도록 했다. 이에 잔치에서 음식만 받아먹고 있던 이몽룡은 자신이 비록 거지꼴이지만 그래도 양반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도 한시를 지었다.

물론 이몽룡은 소설 속의 인물이므로 이 한시의 원작자도 춘향전의 작가일 수밖에 없다. 이몽룡의 모델로 거론되는 실존 인물 성이성의 스승인 조경남이 쓴 <속잡록>에 명나라 장수 조도사(趙都司)가 지은 光海亂政譏詩(광해난정기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시가 금준미주가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실제로 읽어보면 시를 이루는 한자의 반 정도가 아예 똑같다.

金樽美酒 千人血 (금준미주 천인혈): 금빛의 아름다운 잔에 담긴佳酒(佳酒)는 천 백성의 피요,

玉盤佳肴 萬姓膏 (옥반가효 만성고):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 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니,

燭淚落時 民淚落 (촉루락시 민루락):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歌聲高處 怨聲高 (가성고처 원성고): 풍악 소리 높은 곳에 원성 소리 높더라.

이 시를 쓴 직후 이몽룡은 관아를 빠져나갔고 이 시를 받아본 윤봉 영장은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무식한 변학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를 즐기는데...

그 직후 암행어사가 출두하면서 변 사또는 완전 망했어요 상태가 된다. 사실 암행어사의 정체는 새 장원에 급제한 이몽룡이었다.

출두를 숨기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지 꼴로 연인인 춘향이까지 속인 셈.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결과 춘향은 마침내 기생의 딸에서 신분을 뛰어넘어 양반의 정실 부인이 되고 이몽룡은 벼슬이 좌의정까지 올라서 삼남 삼녀 잘 낳아서 잘 산다는 해피 엔딩을 맞게 된다.